

청소년의 욕구가 성형 및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Need on Aesthetic Surgery Attitude and Clothing Attitude of Adolescents

전경란* · 이은희

공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의류상품학과 ·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Jeon, Kyoung Ran · Lee, Eun Hee

Dept. of Fashion Design Merchandi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dolescents' need on their attitudes to aesthetic surgery and clothing. Subjects were 627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is statistical analysis, SPSS 10.0 for Windows Program was used to calculate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lso, these data were verified by Factor analysis, t-test,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Adolescents with higher need for achievement showed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secret and risk of aesthetic surgery. On the other hand, those with higher need for dominance and exhibition were in favor of the surgery and willing to have it despite its high cost and risk. Individuality of clothing was directly affected by need for achievement and dominance. Adolescents with higher need for achievement and dominance considered individuality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And sexual attractiveness of clothing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both need for dominance and exhibition. Such a fact led that adolescents with higher need for dominance and exhibition considered sexual attractivenes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along with individuality. As a conclusion, adolescents' need play an important role in explaining the recently observed trends among adolescents in aesthetic surgery attitude and clothing attitude.

Key Words : Need, Aesthetic Surgery Attitude, Clothing Attitude, Adolescents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인격 전달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외모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며, 성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체외모는 타인에 관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며, 그 사람의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등을 판단하게 하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완할 뿐 아니라 과시적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화장을 한다거나 의복과 장신구를 이용하여 치장하는데 높은 관심을 갖게 되고 취약한 신체부위를 성형하기도 한다(전경란, 2002). 이렇듯 의복은 개인의 외모관

리를 위한 보편적인 도구로 활용되어 신체수정이나 신체부가물의 한가지로 작용한다(Roach-Higgins, Eicher & Johnson, 1995). 따라서 외모개선은 외모를 아름답게 하려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므로 개인의 욕구와 같은 심리적 특성과 성형 및 의복과 같은 외모관련태도를 관련지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외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외모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는 뜻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를 사회와 연결시켜 비판하게 되므로 타인의 인정과 호감을 얻기 위해 의복을 착용하고자 하며, 청소년기 의복착용은 외모에 대한 만족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애란, 김양진, 1996; MacGillivray & Wilson, 1997). 이러한 특성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 풍요와

* Corresponding author: kyoung Ran Jeon

Tel: 041) 850-8302

E-mail: krjeon@kongju.ac.kr

부모의 허용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높은 구매력과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며 성장한 요즈음의 청소년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차은정, 박혜선, 2000).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태도는 욕구와 같은 심리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구가 높은 청소년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Miller, Davis & Rowold, 1982), 매스미디어의 확산과 사회적 비교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외모는 과시력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양진, 강혜원, 1996; Rudd & Lennon, 2000; Rudd & Lennon, 2001). 박성연, 이종미, 임숙자(2001)는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관심의 증가 및 사회적 비교는 나아가 의복에 대한 관심과 행동 등을 증가시켜 의복을 자신에 대한 상징과 평가의 요소로 지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복착용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거나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인간의 내재적인 욕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동기화되어 작용하면서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쳐 외모에 관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욕구가 성형 및 의복태도와 관련을 지니며 상호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변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의 외모관련 행동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며 청소년기 의생활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성호르몬의 분비와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11~12세부터 시작해서 추상적 사고능력과 자아정체감 형성이 이루어지는 18~20세 까지의 연령층으로 이 시기에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자아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정서적으로 불안정을 느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욕구

인간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동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욕구(need)이

다. 욕구이론은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표인 Murray와 동기화의 과정으로 욕구를 이론화한 Maslow의 이론으로 구분된다(강혜원, 1999).

욕구와 행동과의 관계에서 Murray는 성격의 가장 기본적인 일차적 변인은 동기특성이며, 이 동기특성 중에서 가장 원천적인 것이 인간의 욕구라고 규정하였다(황정규, 1968). 또한 Murry(1934)는 욕구에 대해 '지각, 통제, 의복, 행위 등의 일반적 행동을 통합하여 현존하는 불만족 상태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변형시켜 해소시키는 힘으로 두뇌에 존재하는 가설적인 구조'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 힘은 내적·외적으로 충동된 힘으로서 다른 심리적 과정을 조직한다'라고 하였다(이훈구 역, 1983; 심소연, 강혜원, 1983).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욕구 중 성취·지배·과시 욕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성취욕구는 남보다 어려운 일을 성취하려는 것으로,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성취하고, 다른 사람을 능가하며 경쟁하려는 욕구이다. 지배욕구는 인간이나 환경을 지배하려는 것으로, 인간의 환경을 통제하며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시하거나 영향을 주는 욕구를 의미한다. 또한 과시욕구는 남에게 인상이 남도록 하는 것, 남의 주의를 끌려는 것, 남을 흥분시키고 즐겁게 하고 놀라게 해주려는 욕구이다. 이 욕구에서 나타나는 감정은 허영과 화려함 및 자신감이다(문화자, 1985; 심소연, 강혜원, 1983).

의복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욕구이므로, 이와 같은 욕구이론들은 특징적인 외모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의복착용 동기와 욕구와의 관련 연구에서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장식성을 중요시하고, 과시욕구가 강한 사람은 성격이 노출적이고 외향적이어서 의복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복의 실용적인 측면보다는 장식성에 더 관심을 가졌다(김미경, 1990). Ryan(1966)은 성취욕구에서 의복의 편안함에 중점을 두는 사람은 자기 통제적이고 사교적이며, 권위에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의복의 동조성에 중점을 두는 사람은 성실하며 도덕적이고 사교적, 전통적이며 복종적인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인 의복에 대한 흥미와 욕구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다(이인자, 이경희, 신효정, 2001). 욕구와 의복과의 관계를 연구한 Humphrey 등(1971)은 남녀 고등학생 모두 자기 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의복의 심미성을 중요시하였으며, 성취욕구가 의복의 개성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심소연과 강혜원(1983)의 연구에서는 Murray의 욕구이

론 중 과시욕구 및 자율욕구와의 관계를 여고생의 의복 행동과 관련지어 연구한 결과, 과시욕구가 높은 여고생들이 유행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다.

문화자(1985)는 부산시 여고생의 욕구와 의복행동간의 관계 연구에서 여고생들의 욕구수준에서 특히 과시욕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여고생들이 개방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사회적 승인을 얻어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하고 이성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욕구와 의복변인과의 관계에서 과시욕구는 의복의 개성표현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의복의 편안성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박광희, 강혜원(1984)의 연구에서는 지배욕구가 강한 사람이 더욱 개성적인 의복을 중요시하였으며 자신의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도 높았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인간의 욕구는 선별적이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의복행동과 관련을 지니는 경향이 있으며, 인간의 내재적, 잠재적 욕구의 독특한 수준에 따라 인간의 외부적 표현이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성형태도

Kaiser(1985)는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불만족을 느끼게 되었을 때 갈등과 함께 외모를 향상시키고 싶은 심리적 압력을 받게 되므로 성형하려는 태도를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성형태도는 전반적인 성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성형태도는 성형비밀, 성형가치, 성형동조, 성형비용, 성형위험수용의 내용을 포함한다. 성형비밀은 자신이 성형수술한 것을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면서 매력적으로 보아주기를 원하거나, 수술전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기억을 일부러 지워버리려는 태도이다. 성형가치는 자신의 신체조건이 사회적 관계와 정신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외모변화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큰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이다. 성형동조는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외모에 대한 심리적 압력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의견을 바꾸어 타인을 따라 성형하려는 태도이다. 성형비용은 성형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려는 태도이다. 성형위험수용은 위험하더라도 성형을 희망함으로써 성형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성형태도에 근거하여 요구되는 신체의 부분적 변형은 성형으로서, 미용성형은 미용을 목적으로 외양을 아름답게 수정하기 위한 하나의 교정술이다. 이처럼 미용성형수

술은 병적인 원인이 아닌 정상인 상태를 가지고 태어난 신체적 조건을 더욱 아름답게 변형하고 싶어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외모를 아름답게 변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이두형, 장충현, 1994).

사람들의 성형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가면서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들이 점차 증가하여 마침내 미용수술에 대한 인식은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에 이르렀다. 이두형과 장충현(1994)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65%이상이 찬성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청소년기의 외모와 자아개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기는 44%가 자신의 외모 변화를 원하였다고 함으로써 성형수술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Musa & Roach, 1979).

유영천, 이두형, 장충현(1994)의 국내 연구에서도 미용성형수술의 결과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전보다 더 만족했다고 함으로써 Cash와 Horton(1983)의 연구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성형후의 태도는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성형수술은 신체만족도를 조사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상과 같이 젊음과 외모에 대한 강조는 성형에 대한 가치를 더욱 높이 평가하였고, 따라서 성형은 신체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외모관리수단이 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상적인 외모에 근접시켜 신체만족도를 증가시키고자 성형을 하고 의복착용에 그 중요성을 두고 있으며, 외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청소년기에 성형에 대한 관심은 증가할 것으로 본다.

3. 의복태도

의복태도는 의복의 태도, 습관, 착용 행동을 뜻하며 의복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응하려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의복행동의 하위개념이다. 즉, 개인의 일반적인 의복착용행동을 의복태도라 칭하고, 의복행동은 의복태도의 상위 차원으로서 폭넓은 의복변인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이은실, 이명희, 1998).

본 연구에서는 성적매력성, 유행, 개성, 정숙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성적매력성은 의복을 착용함에 있어서 이성을 의식하고, 이성에게 좀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신경을 쓰는 태도이다. 유행은 유행에 관심이 많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새로 유행한 옷을 먼저 구입하여 최신 유행에 맞추려고 신경을 쓰는 태도이다. 개성은 의복을 선택할 때 독특한 디자인이나 색을 선택하여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이려는 태도이다. 정숙성은 의복에서 디자인이나 색이 너무 화려하거나 신체를 노출시키는

의복선택을 피하려는 태도이다.

성적매력성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됨에 따라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이성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게 된다(이인자, 2000). Hurlock(1976)은 청소년은 신체의 변화를 인식하게 되면서 이성으로부터 호감을 얻고자 의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안귀덕(1992)은 한국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일탈행동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이성교제시 자신의 용모와 옷차림에 대하여 가장 많은 신경을 쓴다고 하였으며, 이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 의복행동 연구에서도 여고생은 대인 관계에서 옷차림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성을 의식할수록 또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의 의복이나 머리 모양을 따르는데 적극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였다(김희창, 1998).

유행과 관련해서 청소년기 여학생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수록 유행 행동에 적극적이었고, 이성에게는 좀 더 관심을 끌고 호감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유행 행동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김희창, 1998). 양인숙(1997)의 연구에서는 여고생들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 가장 정서가 불안정하고 외모나 의복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며 유행을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오종은(1995)은 여고생들은 또래집단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유행에 동조하면서 직접적인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김경희(1996)는 여고생들이 개방적이고 활동적이며 유행에 민감한 특성을 보이며 상품구입 시 유행을 고려한다고 하였다.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미경(1997)의 연구에서도 유행에 민감하여 전체 20%만이 유행에 뒤쳐지는 옷을 상관하지 않고 입는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비행정도와 정보탐색 및 유행몰입과의 관계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일반지위 비행정도가 높을수록 유행에 더 몰입하였고, 또한 유행몰입의 정도가 높을수록 패션 정보 탐색의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이은실, 이명희, 1999). 최윤정과 김미숙(1999)의 연구에서는 여고생들은 유행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이고 또한 필요해서 보다 마음에 드는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구매심리를 자극하였고, 의복구매 시 합리적, 실용성에 입각한 구매보다는 외형적인 매력에 의해 의복을 구매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고생들이 의복을 선택할 때 유행과 외형적인 면에만 치우친 나머지 학생의 신분을 잊고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경희와 정성지(2000) 연구에서 중·고등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외모에 관심이 많아 유행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유행 의복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백선영과 이선재(2000)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여고생이 남자과

등학생 보다 유행이나 홍미로운 관심, 실용적 위험지각이 높게 나타나 여학생들이 유행이나 옷에 대한 관심과 홍미 등이 높으면서도 동시에 실용적인 의복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과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성적 행동은 자신이 다른 위치의 존재이고 싶은 욕구의 표출이며 독립성과 자신감이 개성적 행동을 좌우하였으며, 의복의 개성표현은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기 자신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Horn, Gurel, 1981). 홍선옥(1998)의 연구에서 개성은 소속집단이 착용하는 의복과 다른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개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하였다. 심정은과 고애란(1997)은 여고생이 남자 고등학생에 비해 의복에 관심이 많고 타인을 의식하며 의복을 과시적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내적인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정도가 크며, 심리적으로 의복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정숙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은 의복태도 변인 중에서 정숙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희, 1999). Hurlock(1973)은 청소년들은 자기를 인식하고 부끄러워하며 외모나 의복에 대해서 가능하면 타인의 눈에 띄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강혜원과 김영인(1981)의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정숙성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김연수(1984)는 경기도 지역 여고생이 서울지역 여고생보다 정숙성을 더 중요시한다고 밝혔다. 홍찬희(1983)는 남녀 공학의 여학생이 여자학교의 여학생보다 정숙성을 더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원숙(200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의복태도 변인 중 정숙성이 높았다.

박성연, 이종미 그리고 임수자(2001)의 연구에서는 동조성을 제외한 심미성, 정숙성, 심리적 안정성, 과시성, 의복 관심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여고생이 남자 고등학생에 비해 보다 의복의 미적인 면과 단정한 면을 중요시하며 의복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구와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를 극복하기 위해 의복을 사용하고 있었다. 외모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 의복을 잘 입었다고 느낄 때는 더 자신감이 있고 적극적이 되나, 적당하지 못한 의복을 입었을 때는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욕구가 성형 및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청소년기의 의복태도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2002년 8월 중에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에서 연수중인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교사가 소속한 중·고등학교 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2002년 9월에서 10월에 걸쳐 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627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분포는 남학생이 281명으로 44.8%, 여학생이 346명으로 55.2%이었다. 연령은 12세에서 13세가 153명(24.4%), 14세가 174명(27.8%), 15세가 93명(14.8%), 16세가 139명(22.2%), 17세에서 19세가 68명(10.8%)이었다. 학교유형에 따라서는 중학교가 62.4%, 고등학교가 37.6%이었다. 가정의 사회계층은 중류층이 341명(54.4%)으로 현저히 높았으며,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 각각 51.8%, 57.1%로 가장 많았다. 용돈은 1만원 이하와 3만원이 25.2%로 높게 나타났다. 소속된 학교의 학급 수는 24에서 36학급 이하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거주지는 대도시 42.1%보다 중소도시 57.9%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체형은 주로 표준형이었고(49.0%), 보통키가(43.1%) 가장 많았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로 구성되었다. 모든 설문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먼저 욕구 측정검사는 Murray의 욕구이론을 기초로 하여 황정규(1968)가 제작한 욕구 진단 검사 문항 중에서 성취·지배·파시 욕구에 해당되는 문항 중에서 본 연구에 맞게 각각 선택하여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형태도는 전경란(2002)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성형 가치, 성형비밀, 성형동조, 성형비용, 성형위험수용에 대한 5개의 차원에서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복태도 변인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성격매력성, 유행, 개성, 정숙성에 대한 4개의 차원에서 총 40문항을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for Windows Program을 이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변인	항목	n	%
성별	남	281	44.8
	여	346	55.2
연령	12-13세	153	24.4
	14세	174	27.8
	15세	93	14.8
	16세	139	22.2
	17-19세	68	10.8
학교유형	중학교	391	62.4
	고등학교	236	37.6
사회계층	상	151	24.1
	중	341	54.4
	하	135	21.5
학력	중졸이하	142	22.6
	고졸	325	51.8
	대졸이상	160	25.5
	중졸이하	184	29.3
	고졸	358	57.1
	대졸이상	85	13.6
용돈	1만원 이하	158	25.2
	2만원	127	20.3
	3만원	158	25.2
	4-5만원	104	16.6
	6만원 이상	80	12.8
학급수	12학급 미만	158	25.2
	12-24학급 미만	153	24.4
	24-36학급 미만	209	33.3
	37학급 이상	107	17.1
거주지	대도시	264	42.1
	중소도시	363	57.9
체형	마른형	168	26.8
	표준형	307	49.0
	비만형	152	24.2
키	작은키	185	29.5
	보통	207	43.1
	큰키	172	27.4
계		627	100.0

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 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의복태도의 차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욕구와 성형태도, 의복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욕구와 성형태도 및 의복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욕구와 성형태도가 의복태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태도의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의복태도 40문항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Varimax 회전방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요인 1은 성적매력성에 관련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0.53 이상이고 모두 6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5.84이고 전체 변량은 30.76%였으며, α 신뢰도는 .81이었다. 요인 2는 개성 관련 내용으로 요인부하량은 0.46 이상이고 모두 5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87이고 전체변량은 9.8 5%이었으며, α 신뢰도는 .74이었다. 요인 3은 유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요인부하량은 0.65 이상이고 모두 4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고유치는 1.36이고 전체변량은 7.13이었으며, α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요인 4는 정숙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요인부하량은 0.51 이상이고 모두 4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19이고 전체변량은 6.26%였으며 α 신뢰도는 .48로 나타났다.

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의 차이

청소년의 성별, 연령, 학교유형, 부모학력, 용돈에 따른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3~7과 같다.

<표 2> 의복태도의 요인분석

	요인 및 문항	요인부하량
<요인 1> 성적매력성		
나는 이성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을 때는 나의 매력을 나타내기 위해 좀 더 옷차림에 신경을 쓴다.	.71	
나는 이성의 관심을 끄는 옷을 입으려고 한다.	.71	
새 옷을 살 때 그 옷이 나의 이성친구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70	
나는 가능한 한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옷을 입으려고 한다.	.61	
나는 나의 의복이 멋있다는 평을 듣기 위해 노력한다.	.55	
이성교제를 한다면 나는 자신의 성적 매력을 드러보이는 옷차림을 한다.	.53	
변량(%)=30.76 누적변량(%)=30.76 고유치=5.84 α 신뢰도=.81		
<요인 2> 개성		
나는 옷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입는 사람이 되고 싶다.	.77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의 개성을 나타내는 옷이 좋다.	.75	
나는 의복구매시 색, 디자인, 소재가 잘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한다.	.61	
나는 주로 독특한 스타일의 의복을 즐겨 입는다.	.55	
나는 될 수 있는 한 옷과 잘 어울리는 장신구와 부속품을 착용하려고 노력한다.	.46	
변량(%)=9.85 누적변량(%)=40.61 고유치=1.87 α 신뢰도=.74		
<요인 3> 유행		
유행에 관한 소식을 정기적으로 읽고 자신의 옷을 최신 유행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78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의복유행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72	
새로 유행하는 옷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입하는 편이다.	.67	
새로운 유행에 관한 정보를 친구들에게 제공하는 편이다.	.65	
변량(%)=7.13 누적변량(%)=47.74 고유치=1.36 α 신뢰도=.81		
<요인 4> 정숙성		
나는 언제나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단정한 옷차림을 하려고 노력한다.	.62	
나는 정숙한 느낌이 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60	
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킬만한 옷은 입지 않는다.	.59	
외출할 때 지나치게 신체를 드러내거나 파진 것은 절대로 입지 않는다.	.51	
변량(%)=6.26 누적변량(%)=54.00 고유치=1.19 α 신뢰도=.48		

1) 성별에 따른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의 차이 검증

성별에 따라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욕구변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형비밀을 제외한 성형태도 모든 변인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p<.01$), 의복태도는 유행, 개성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난데 비해 ($p<.05$), 정숙성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p<.05$)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에서 보면,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평가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이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Creekmore, 1974; Cash, Winstead & Janda, 1986; 구정화, 1994), 털 매력적이라고 지각한다고(심정은, 고애란, 1997) 하였다. 그 이유로 Freeman(1984)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문화적 이상을 성취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여학생의 외모에 대한 태도는 성형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2) 연령에 따른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의 차이 검증

연령에 따른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욕구의 성취욕구 변인이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취욕구가 가장 높은 연령은 15세이고, 15세를 기점으로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태도 변인 중에서 성형비밀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연령에 따른 성형태도는 16세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모든 변인에서 높게 평가하였다. 이처럼 성형태도에 대하여 16세가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게 평가한 것은 16세는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시기로서, 다른 연령층보다 입시에 대한 영향을 덜 받게되고 따라서 외모에 대해 더 많이 의식하게 되므로 외모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성형에 대하여 관심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표 3> 성별에 따른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의 차이

성별		남 (n=281)	녀 (n=346)	t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				
	성취욕구	3.77	3.79	-.53
욕구	지배욕구	3.02	2.98	.76
	과시욕구	3.31	3.30	.27
성형태도				
	성형가치	2.26	2.73	-8.05**
	성형비밀	2.42	2.51	-1.48
	성형동조	2.21	2.75	-8.05**
	성형비용	1.88	2.31	-7.47**
의복태도				
	성형위험수용	1.72	1.97	-4.27**
	성적매력성	2.88	2.86	0.34
의복태도	유행	2.40	2.56	-2.60*
	개성	2.85	3.25	-7.58*
	정숙성	3.18	3.06	2.21*

* $p<.05$, ** $p<.01$

<표 4> 연령에 따른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의 차이

연령		12-13세 (n=153)	14세 (n=174)	15세 (n=93)	16세 (n=139)	17-19세 (n=68)	F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							
	성취욕구	3.73(ab)	3.68(b)	3.90(a)	3.85(a)	3.84(ab)	3.16*
욕구	지배욕구	2.99	2.96	3.06	3.07	2.86	1.7
	과시욕구	3.29	3.21	3.31	3.42	3.31	2.17
성형태도							
	성형가치	2.31(d)	2.38(cd)	2.53(bc)	2.82(a)	2.71(ab)	11.18**
	성형비밀	2.38	2.54	2.52	2.48	2.42	1.03
	성형동조	2.31(c)	2.37(c)	2.52(bc)	2.78(a)	2.74(ab)	7.69**
	성형비용	1.95(b)	2.80(b)	2.09(b)	2.39(a)	2.10(b)	6.92**
	성형위험수용	1.75(b)	1.79(b)	1.77(b)	2.09(a)	1.91(ab)	4.91**
의복태도							
	성적매력성	1.87	2.02	2.45	2.68	2.22	1.25
	유행	2.94	2.10	2.39	2.34	2.17	1.79
	개성	1.90	2.00	1.74	1.58	1.57	1.11
	정숙성	1.94	1.97	2.22	2.76	1.99	2.39

* $p<.05$, ** $p<.01$, 문자 a, b, c, d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

3) 학교유형에 따른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의 차이
검증

학교유형에 따라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는 성취욕구와 과시욕구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높게 나타나 각각 $p<.01$,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형태도 변인 중에서 성형비밀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의복태도 변인 중에서는 정숙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높게 나타나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조선명과 고애란(2001)은 청소년기에서도 특히 고등학생 시기에 매스미디어에 가장 영향을 받으며, 매스미디어에 나타나는 이상적인 외모를 통해 사회적 외모기준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태도는 고등학생 시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등학생 시기의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은 성형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표 5> 학교유형에 따른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의 차이

학교유형		중학교 (n=391)	고등학교 (n=236)	t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	성취욕구	3.73	3.87	-2.93**
	지배욕구	2.99	3.01	-.58
	과시욕구	3.25	3.38	-2.56*
성형 태도	성형가치	2.36	2.77	-6.64**
	성형비밀	2.48	2.46	.33
	성형동조	2.35	2.76	-5.83**
의복 태도	성형비용	2.01	2.30	-4.72**
	성형위험수용	1.77	2.00	-3.80**
	성적매력성	2.78	3.02	-4.17**
의복 태도	유행	2.41	2.61	-3.16**
	개성	2.27	2.95	-5.72**
	정숙성	3.14	3.07	1.36

* $p<.05$, ** $p<.01$

4) 부모의 학력에 따른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의 차이 검증

먼저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표 6-a>와 같다. 아버지 학력에 따른 차이는 욕구변인에서만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각각 $p<.01$,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남녀 청소년의 성취, 지

<표 6-a> 아버지 학력에 따른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의 차이

학력		중졸이하 (n=142)	고졸 (n=325)	대졸 (n=160)	F
욕구,	성취욕구	3.79(ab)	3.73(b)	3.88(a)	3.07*
성형태도, 의복태도	지배욕구	2.91	2.96(b)	3.15(a)	6.87**
	과시욕구	3.25(b)	3.27(b)	3.41(a)	3.17*
	성형가치	2.44	2.56	2.51	1.16
성형 태도	성형비밀	2.47	2.50	2.42	.56
	성형동조	2.45	2.55	2.47	.82
	성형비용	2.09	2.14	2.11	.25
	성형위험수용	1.76	1.87	1.92	1.82
	성적매력성	2.89	2.75	2.22	2.58
의복 태도	유행	2.54	2.81	3.00	3.01
	개성	3.02	2.77	2.68	0.12
	정숙성	3.04	2.85	2.67	2.43

* $p<.05$, ** $p<.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법위검증($p<.05$)

배, 과시욕구가 높게 나타나, 청소년기 욕구수준에 아버지의 학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 학력에 따른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표 6-b>와 같다. 어머니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지배욕구와 과시욕구가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각각 $p<.01$,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형태도 변인 중에서 성형에 대한 위

<표 6-b> 어머니 학력에 따른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의 차이

학력		중졸이하 (n=184)	고졸 (n=328)	대졸 (n=85)	F
욕구,	성취욕구	3.80	3.76	3.85	.93
성형태도, 의복태도	지배욕구	2.93(b)	2.98(b)	3.19(a)	5.24**
	과시욕구	3.27(b)	3.27(b)	3.47(a)	3.55*
성형 태도	성형가치	2.50	2.53	2.50	.13
	성형비밀	2.50	2.48	2.37	.78
	성형동조	2.51	2.54	2.38	1.02
의복 태도	성형비용	2.09	3.14	2.11	.21
	성형위험수용	1.76(b)	1.87(ab)	2.02(a)	3.47*
	성적매력성	2.77(b)	2.89(ab)	3.01(a)	3.71*
의복 태도	유행	2.40	2.51	2.55	1.51
	개성	3.03	3.08	3.14	0.77
	정숙성	3.08	3.13	3.13	0.44

* $p<.05$, ** $p<.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법위검증($p<.05$)

험수용에서, 의복태도 변인 중에서는 성적매력성에서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학력보다는 어머니 학력이 성형 및 의복태도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용돈에 따른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의 차이 검증

용돈에 따른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용돈에 따른 차이는 성형비밀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p<.01$,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용돈이 많을수록 성취, 지배, 과시욕구가 높았다. 또한 성형태도 변인 중에서 성형비밀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용돈이 4-5만원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의복태도는 모든 변인에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욕구와 마찬가지로 용돈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3. 욕구와 성형태도 및 의복태도와의 관계

욕구와 성형태도 및 의복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성취욕구와 성형태도변인과의 관계는 $p<.05$ 수준에서 성형가치와 부적상관을, $p<.01$ 수준에서 성형위험수용과 부적상관을 나타내어 성취욕구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성형에 대한 가치와 성형위험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낮았다.

<표 7> 용돈에 따른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의 차이

		용돈	1만원이하 (n=158)	2만원 (n=127)	3만원 (n=158)	4-5만원 (n=104)	6만원이상 (n=80)	F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	성취욕구	3.77(b)	3.72(b)	3.75(b)	3.76(b)	3.98(a)	2.68*	
	지배욕구	2.92(b)	2.80(b)	3.01(b)	3.06(ab)	3.19(a)	3.64**	
	과시욕구	3.21(b)	3.21(b)	3.28(b)	3.34(b)	3.61(a)	6.24**	
	성형가치	2.35(b)	2.51(ab)	2.53(ab)	2.69(a)	2.63(a)	3.83**	
	성형비밀	2.53	2.44	2.40	2.58	2.41	1.14	
성형 태도	성형동조	2.36(c)	2.46(bc)	2.48(bc)	2.73(a)	2.64(ab)	3.53**	
	성형비용	2.00(c)	2.12(abc)	2.06(ab)	2.28(a)	2.26(ab)	3.05*	
	성형위험수용	1.71(b)	1.90(ab)	1.77(b)	2.04(a)	2.02(a)	4.62**	
	성적매력성	2.68(c)	2.78(bc)	2.91(b)	2.96(b)	3.17(a)	7.73**	
	유행	2.25(c)	2.31(c)	2.57(b)	2.63(b)	2.88(a)	12.27**	
의복 태도	개성	2.87(c)	2.92(bc)	3.09(b)	3.27(a)	3.42(a)	13.28**	
	정숙성	2.89(d)	3.03(cd)	3.08(bc)	3.20(ab)	3.26(a)	6.05**	

* $p<.05$, ** $p<.01$, 문자 a, b, c, d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

<표 8> 욕구와 성형태도 및 의복태도와의 상관관계

성형, 의복태도	욕구	성취욕구	지배욕구	과시욕구
		.014	.100*	.183**
성형 태도	성형가치	-.086*	.040	.039*
	성형동조	.006	.103**	.173**
	성형비용	-.024	.103**	.188**
	성형위험수용	-.118**	.106**	.134**
	성적매력성	.242	.457**	.532**
의복 태도	유행	.083*	.337**	.341**
	개성	.291**	.376**	.428**
	정숙성	.127**	-.023	-.060

* $p<.05$, ** $p<.01$

이것은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성형 후에 아름다워진다 하더라도 성형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배욕구는 성형가치를 제외한 성형비밀은 $p<.05$, 성형동조, 성형비용, 성형위험수용에서 $p<.01$ 수준에서 정적상관이 있었다. 과시욕구는 성형가치는 $p<.05$ 수준에서, 나머지 성형태도의 4변인과 $p<.01$ 수준에서 정적상관이 있었다. 즉, 지배욕구와 과시욕구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성형동조성이 높고 성형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려 하며 성형위험을 수용하여 위험하더라고 성형을 하려는 태도가 높았다.

욕구와 의복태도와의 관계를 볼 때, 성취욕구, 지배욕구, 과시욕구는 개성과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다. 즉, 성취욕구와 지배욕구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의복의 개성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성취욕구는 의복의 정

숙성과 지배욕구와 과시욕구는 의복의 매력성과 유행에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다. 지배욕구와 과시욕구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매력적으로 의복을 입으려 하였고 유행에 따르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4. 성형태도 및 의복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 관계

남녀 청소년의 욕구가 성형태도 및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형태도와 의복태도의 하위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그 종속변인에 작용하는 독립변인들을 대상으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 <표 10>과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 청소년의 성별, 연령, 학교유형, 부모학력, 용돈, 성취욕구, 지배욕구, 과시욕구 변인이 성형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성별(-), 과시욕구, 연령, 성취욕구(-), 아버지 학력은 성형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 5개 변인의 설명력은 17.3%였다. 즉 여학생이고 과시욕구가 높고, 연령이 많을

수록, 성취욕구가 낮고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성형수술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성형비밀은 성취욕구(-)와 과시욕구가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 2개 변인의 설명력은 1.8%였다. 성취욕구가 낮으며 과시욕구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성형수술을 자기만의 비밀로 유지하려는 정도가 더 높았다.

성형동조에는 성별(-)과 과시욕구, 성취욕구(-), 연령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4개 변인의 설명력은 15.1%였다. 즉 여학생이고, 과시욕구가 높고 성취욕구가 낮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성형에 대하여 동조하는 태도가 더 높았다.

성형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성형비용에는 성별(-), 과시욕구와 성취욕구(-)가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의 설명력은 14.3%였다. 즉, 여학생이고, 과시욕구가 높으며 성취욕구가 낮을수록 성형비용이 들어도 성형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위험수용은 성별(-), 과시욕구, 성취욕구(-), 어머니 학력, 연령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 5개의 변인의 설명력은 12.3%였다. 즉, 여학생이고, 과시욕구가 높고 성취욕구가 낮을수록, 어머니 학력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성형에 대한 위험을 수용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표 9> 성형태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²
성형비밀	성별	-.429	-.278	-7.279**	$R^2=.173$
	과시욕구	.290	.243	5.597**	$F=25.879**$
	연령	.095	.183	4.689**	$df=5/621$
	성취욕구	-.186	-.143	-3.388**	$constant=.821$
	아버지학력	.056	.091	2.383*	$D-W=2.063$
성형가치					$R^2=.018$
	성취욕구	-.200	-.151	-3.203**	$F=5.613**$
	과시욕구	.148	.120	2.548*	$df=2/624$
					$constant=2.738$
성형동조					$D-W=1.866$
	성별	-.493	-.280	-7.281**	$R^2=.151$
	과시욕구	.334	.245	5.584**	$F=27.675**$
	성취욕구	-.208	-.142	-3.238**	$df=4/622$
성형비용	연령	.071	.120	3.120**	$constant=1.368$
					$D-W=2.003$
	성별	-.443	.294	-7.909**	$R^2=.143$
	과시욕구	.339	.290	6.603**	$F=34.624**$
성형위험수용	성취욕구	-.232	-.186	-4.221**	$df=3/623$
	어머니학력				$constant=2.080$
	연령				$D-W=1.962$
	성별	-.264	-.174	-4.393**	$R^2=.123$
	과시욕구	.307	.262	5.838**	$F=17.339**$

* $p<.05$, ** $p<.01$

남녀 청소년의 성별, 연령, 학교유형, 부모학력, 용돈, 성취욕구, 지배욕구, 과시욕구 변인이 의복태도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먼저 성적매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과시욕구, 지배욕구, 연령, 성취욕구(-)가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5개 변인의 설명력은 31.8%였다. 즉, 과시욕구와 지배욕구가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성취욕구가 낮을수록 의복착용시 성적매력성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높았다.

유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과시욕구, 성취욕구(-), 성별(-)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5개 변인의 설명력은 18.2%였다. 즉, 여학생이고, 과시욕구가 높고, 성취욕구가 낮을수록 의복착용시 유행을 더 고려하였다.

개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과시욕구, 성별(-), 지배욕구, 용돈, 어머니 학력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6개 변인의 설명력은 30.2%였다. 즉, 여학생이고, 과시욕구와 지배욕구가 높을수록, 용돈이 많을수록,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개성을 더 중요시하였다.

정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용돈(-), 성취욕구, 과시욕구(-), 성별의 순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4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6.2%이었다. 즉 용돈이 적을수록, 성취욕구가 높고, 과시욕구가 낮을수록, 남학생이 의복에 대한 정숙성이 높았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사회발달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욕구가 성형 및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건전한 지도를 위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기 의복태도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2년 8월 중에 공주대학교에서 연수중인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교사가 소속한 중·고등학교 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2002년 9월에서 10월에 걸쳐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627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의 차이 검증에서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욕구변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형비밀을 제외한 성형태도 모든 변인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았으며, 의복태도는 유행, 개성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난데 비해 정숙성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성취욕구가 가장 높은 연령은 15세이었고, 성형태도는 16세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성형비밀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높게 평가하였다.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에서는 성취욕구와 과시욕구, 성형비밀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의

<표 10> 의복태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²
성적매력성	과시욕구	.494	.447	9.021**	R ² =.318
	지배욕구	.212	.182	3.784**	F=57.916**
	연령	.046	.095	2.836**	constant=.556
	성취욕구	-.118	-.100	-2.484**	df=5/621 D-W=1.875
유행	과시욕구	.337	.277	5.115**	R ² =.182
	성취욕구	-.243	-.186	-4.245**	F=27.583**
	성별	-.167	-.106	-2.902**	constant=1.544 df=5/621 D-W=1.903
개성	과시욕구	.327	.308	6.469**	R ² =.302
	성별	-.410	-.299	-8.661**	F=44.740**
	지배욕구	.164	.147	3.083**	constant=1.515
	용돈	.014	.085	2.514*	df=5/620
	어머니학력	.045	.070	2.003*	D-W=1.914
정숙성	용돈	-.017	-.117	-2.979**	R ² =.062
	성취욕구	.236	.227	4.918**	F=10.221**
	과시욕구	-.163	-.168	-3.617**	constant=2.772 df=4/622
	성별	.112	.089	2.287*	D-W=1.795

*p<.05, **p<.01

복태도 변인 중에서는 정숙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중 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에 따른 차이는 욕구변인에서만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지배욕구와 과시욕구가, 성형에 대한 위험에서, 의복태도 변인 중에서는 성적매력성에서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용돈에 따른 차이에서는 용돈이 많을수록 성취, 지배, 과시욕구가 높았으며, 성형비밀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용돈이 4-5만원 수준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의복태도는 모든 변인에서 용돈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욕구와 성형태도 및 의복태도와의 관계에서 성취욕구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성형의 비밀과 성형위험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낮았으며, 지배욕구와 과시욕구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성형동조성이 높고 성형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려 하며 성형위험을 수용하여 위험하더라고 성형을 하려는 태도가 높았다. 욕구와 의복태도와의 관계를 볼 때, 성취욕구와 지배욕구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의복의 개성을 중요시하였으며, 지배욕구와 과시욕구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매력적으로 의복을 입으려 하였고 유행에 따르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의복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에서 과시욕구와 지배욕구가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성취욕구가 낮을수록 의복착용시 성적매력성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높았다. 과시욕구가 높고, 성취욕구가 낮을수록 의복착용시 유행을 더 고려하였고, 과시욕구와 지배욕구가 높을수록, 용돈이 많을수록,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개성을 더 중요시하였다. 용돈이 적을수록, 성취욕구가 높고, 과시욕구가 낮을수록, 남학생이 의복에 대한 정숙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볼 때 청소년의 욕구는 성형태도와 의복태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성취욕구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성형의 비밀과 성형위험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낮았으며, 과시욕구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성형동조성이 높고 성형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려 하며 성형위험을 수용하여 위험하더라고 성형을 하려는 태도가 높았다. 과시욕구와 지배욕구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의복의 개성을 중요시하였으며, 지배욕구와 과시욕구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매력적으로 의복을 입으려 하였고 유행에 따르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조사대상자를 편의추출하였다라는 점과 연수중인 중·고등학교 교사가 속한 일부지역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라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연령층을 더욱 확대하여 성형 및 의복태도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을 폭넓게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제어 : 욕구, 성형태도, 의복태도, 청소년

참 고 문 헌

- 강혜원·김영인(1981). 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의복 행동에 관한 연구: 교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5(2), 270.
- 강혜원(1999).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 고애란·김양진(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 중심성, 자아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667-681.
- 김경희(1996). 여고생의 유행선도력에 따른 구매 전 의사 결정과정.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정성지(2000). 중·고등학생들의 의복동조와 의복태도와의 관련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3), 401-411.
- 김미경(1990). 의복착용자의 욕구 및 인구통계적 변인과의 관련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진·강혜원(1996).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197-211.
- 김연수(1984). 청소년의 의복행동과 문제 성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창(1998). 청소년기 여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또래집단 수용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정화(1994).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관한 연구 -성별, 학교변인별, 가정변인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 95-113.
- 문화자(1985). 여고생의 욕구와 의복행동간의 관계연구 -부산시 여고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광희·강혜원(1984). 여고생들의 의복행동과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1), 13-19.
- 박성연·이종미·임숙자(2001).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의생활·식생활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9(8), 1-18.
- 백선영·이선재(2000). 고교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관여 및 의복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1), 55-66.
- 심소연·강혜원(1983).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과시 및 자율욕구와의 상관연구 -의복의 과시성, 유행, 교복자율화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7(2), 53-69.
- 심정은·고애란(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1334-1345.
- 안귀덕(1992). 한국 청소년의 여가 활동과 일탈행동. *한국청소년 문화* II.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양인숙(1997). 교사의 의복행동에 대한 여고생들의 선호도

-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종은(1995). 신세대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영천·이두형·장충현(1994).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태도 조사(I). 대한성형외과학회지, 21(3), 452-459.
- 윤미경(1997). 상품광고와 청소년의 구매행동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원숙(2003).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또래수용과 의복태도와의 관련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두형·장충현(1994). 미용성형외과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 조사연구. 대한성형외과학회지, 21(3), 1138-1147.
- 이명희(1999).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적응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 46, pp.143-158.
- 이인자(2000). 복식사회심리학. 서울:수학사.
- 이은실·이명희(1998). 의복행동 및 의복태도 관련 변인에 관한 문헌고찰. 생활문화연구, 12(1).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1-25.
- 이은실·이명희(1999). 청소년의 비행정도가 정보탐색 및 유행몰입과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3), 402~413.
- 이훈구 역(1983). 성격심리학(L. A. Hjelle & D. J. Ziegler. Personality theories: Basic assumption research and applications, 2nd ed.). 서울: 법문사.
- 전경란(2002).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과 성형 및 의복태도의 관련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선명·고애란(2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 여학생의 연령 집단별 차이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7), 1227-1238.
- 차은정·박혜선(2000). 여고생들의 상표선흐에 대한 연구 -라이프스타일, 광고표현형식, 상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4), 487-497.
- 최윤정·김미숙(1999). 유행 태도에 따른 여고생의 의복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4), 111-126.
- 황정규(1968). 욕구진단검사, 검사요령. 서울: 코리안테스팅센터.
- 이인자·이경희·신효정(2001).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 홍선옥(1998). 청소년의 비행정도와 의복태도 및 의복착용 시 영향집단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찬희(1983). 여고생의 자아개념과 의복착용 동기와의 상관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ash, T. F. & Horton, C. E.(1983). Aesthetic surgery: Effects of thinoplasty on social perception of patients by others.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72, 543-548, In Cash, T. F. & Pruzinsky, T.(Eds.)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ash, T. F. & Winstead, B. A. & Janda, L. H.(1986). body image survey report : the Great American shape-up. *Psychology Today*, 20, 30-44.
- Creekmore, A. M.(1974). Clothing related to body satisfaction and perceived self(Report No. 239). East Lansing, MI: Michigan State Univers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 Freeman, R. J.(1984). Reflections on beauty as it related to health in adolescent females. *Woman and Health*, 9(2-3), 29-45.
- Horn, M. J. & Gural, L. M.(1981).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Hurlock, E. B.(1973). *Adolescent Development* (4th ed.). Tokyo: Internationalion, McGraw-Hill Kogakusha, Ltd.
- Hurlock, E. B.(1976). *Developmental Psychology*(4th ed.). New Delhi, Tata. McGrawhill, Book Co., Ltd.
- Humphrey, C., Klaasen, M. & Creekmore, A. M.(1971).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4), 246-250.
- Kaiser, S. B.(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Publication.
- MacGillivray, M. S., & Wilson, J. D.(1997). Clothing and appearance among early, middle and late adolescent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5(1), 43-49.
- Miller, F. G., Davis, L. L., & Rowold, K. L.(1982). Public self-consciousness, social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loth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4). 363~368.
- Musa, H. E. & Roach, M. E.(1979). Adolescent appearance and self-concept. *Adolescence*, 8, 385-394.
- Roach-Higgins, M. E., Eicher, J. B., & Johnson, K. K. P.(1995). *Dress and identity*.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
- Rudd, N. A., & Lennon, S. J.(2000). Body image and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 in college woman.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8(3), 152-162.
- Rudd, N. A., & Lennon, S. J.(2001). Body image:

- Linking aesthetics and social psychology of appearance.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9(3), 120-133.
- Ryan, M. S.(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2005. 11. 12 접수; 2005. 1. 21 채택)